

# “ESCO 노하우로 CDM 정복한다”

에너지관리공단 CDM 인증원 황재영 원장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이 지난 2월 1일 이사장직할의 독립부서로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CDM 집행위원회 22차 회의에서 개도국으로는 처음으로 CDM운영기구로 지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CDM관련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ESCO는 에너지절약기술과 진단 능력 등의 노하우로 CDM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SCO의 CDM사업 향상 발굴능력 등을 위해 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황재영 원장을 만났다.

박정미 기자(psn0304@energycenter.co.kr)

## CDM인증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DM 사업 관련 국내 또는 국제기관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COP/MOP), CDM집행위원회(EB), CDM사업운영기구(DOE), 국가 CDM 승인기구(DNA)가 있습니다. 공단 CDM인증원은 바로 DOE에 속합니다. DOE는 CDM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DNV(Det Norske Veritas : 영국), JQA(일본 품질협회) 등 세계적으로 12곳이 지정받은 상황입니다. 인증원은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CDM사업에 신청된 CDM사업의 타당성 확인 심사, 타당성 확인이 종료된 CDM사업의 배출저감에 관한 검증 및 인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 CDM인증원이 없다면 해외의 인증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이번 인증원 지정으로 국내 CDM사업투자가 수월해질 것은 물론 사업 등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CO는 CDM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ESCO는 에너지절약설비 등의 진단 및 기술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M사업 발굴능력이 풍부합니다. 우선 CDM사업의 감축량이나 사업계획서 관련 컨설팅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CDM관련 사업이 활발해지면 컨설팅관련 전문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원과 공단 기후대책총괄실에 있는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와 CDM사업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 교육이 끝난 상태이고 하반기 중으로 외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으로 ESCO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현장검사원 등의 자격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 올해 인증원의 사업계획은?

지난해 강원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료사용량이 많은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CDM사업들에 대해 5개 이상의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 공단의 인증능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 해외 인증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을 심분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감축의무를 받게될 때의 무이행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너지산업, 제조, 화학 3가지분야에 대한 인증에서 나아가 15개 분야 모두 올해 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수송, 폐기물 등 전분야로 확대되면 명실상부한 종합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되는 셈입니다. 또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및 검증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자서비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재영 원장 프로필  
80년 10월 공단 입사  
건물기술과장(10년), 진단지도실(5년), 감사실장,  
총복지사장, 서울지사장, R&D관리실장 역임